



自然公園과 野生鳥 <28>

흰뺨검둥오리

- 학명 *Anas poecilorhyncha zonorhyncha* SVOINHOE
- 영명 Eastern Spot-billed Duck

엇 그제 같이 모내기를 한 무논은 작열하는 오뉴월 태양을 받아 보기
섯 좋은 진초록으로 채색되어 갈 즈음이면 언덕밭이 풀섬이나 산에
서 부화한 병아리들을 거느린 흰뺨검둥오리가 먹이를 찾아 논으

로 숨어든다.

원래 50년대만 해도 이 흰뺨검둥오리는 청둥오리와 같이 겨울철새였던 물오리였으나, 60년대부터 이땅에서 번식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한 텃새로 자리매김을 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농경지 언저리나 저수지 또는 강변의 습지에서 번식을 시작하여 야산까지 진출했으나 이제는 심산유곡의 외진곳까지 영역을 넓혔고, 육지에서 멀지않은 인적이 드문 섬은 거의 이 흰뺨검둥오리들이 둥지를 튼다. 그래서 물오리들이 무리생활을 하는 겨울철에는 북방에서 월동을 위해 남하한 무리들과 혼성팀이 되어 그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줄어들 기세는 전혀 엇보이지 않는다.

대다수 오리들이 번식기에 천적이 나타나면 의태를 부리며 다친 시늉으로 시선을 끌어 따돌리는 선수들인데 흰뺨검둥오리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흰뺨검둥오리 병아리도 기묘한 수법으로 생존술을 쓰는데, 몇년전 뺨치 보이는 육지로 건너오는 바다에서 한무리의 가족군이 섬에서 부화하여 육지로 이동중이었는데 상상치도 못하게 어린 병아리들이 물속으로 잠수하여 도망 다니는 꼴이 농병아리 뺨치는 재주를 보여준 일이 있었다.

대개의 갯 부화된 물오리병아리는 체중이 종이장 같이 가볍고 뺨뺨한 솜털이 발달하여 물위에 뜰때는 부력을 받아 절대 물속으로 잠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흰뺨검둥오리 새끼는 물속으로 10여미터씩 자유자재로 교묘히 위험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일은 경이롭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둥지는 반드시 덩불 속의 지상에다 오목하게 땅을 판 뒤 검부라기와 앞가솜털을 뽑아 일급의 산좌를 만드는데 알을 품을 때는 땅색과 흡사한 보호색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으면 잘 발견이 되지 않는다.

벼에 물이 오르는 결실기가 가까우면 이 흰뺨검둥오리가 눈에 내려 입질을 해 대기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지만 어린새는 순전히 곤충으로 자라므로 득과 실을 함께 나누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

글·사진 李正雨 <삼육대학교수·동서조류연구소장>